

# 광주 기초의회 특위 성과 ‘낙제점’

## 청사 진상조사·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대안 도출 부족 단순회의·장기간 활동만 구의회 차원 한계... ‘치적쌓기’ 비판

광주 5개 자치구의회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의원들의 ‘이력 과시’로 전락하는 등 ‘기초의회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 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특위 활동에 나섰지만, 단순 회의·현장 활동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커녕 ‘보여주기·치적쌓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26일 광주 5개 기초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구분돼 상임위는 상설

로 설치·운영되는 반면, 특위는 ‘일시적이고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한다.

특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특위 설치 시 활동기간을 정해야 하지만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가급적 활동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권고다.

제8대 광주 기초의회는 관내 대형사고 또는 현안 해결 모색을 위해 특위를 구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구의회 활동봉괴참사 특위는 2021년 6월-2022년 4월까지 약 10개월간 운영되며, 봉괴사고 원인과 관리책임 등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서구의회 치평동 클럽 봉괴사고 특위는 지난 2019년 8월12일-8월30일 19일간 운영돼,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구의회 남구청사 진상조사 특위는 2018년 10월-2020년 4월 1년6개월의 활동기간을 거치면서 두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했고, 청사 위탁개발비 문제 등 관련 업무의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북구의회 일곡지구 재개발폐기물 대책 특위는 2020년 2월11일-2022년2월10일 2년간 운영되는데, 폐기물 처리 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주민, 소관부서, 관계기관 간 소통 증대 등에 나서고 있다.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특위는 2018년 9월-2021년 6월 2년9개월간 군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는 기초의회 특위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반면, 내년 선거용 ‘이력 과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의회 차원에서 대형사고의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을 마련하거나, 수년째 이어져 온 지역 숙원 현안을 해결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수차례 단순 회의·현장 활동·조례 발의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등 의회 권한이 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의원 전문성·역량 부족과 비리, 코로나 연수 등 질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당선부터 되고 보자’라는 식의 사실상 특위 활동에 의지 자체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일선 자치구의회 한 관계자는

“기초의회의 경우, 굵직한 지역 현안이나 대형사고 등 이슈를 선점해 특위 활동에 나서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특위 취지에 맞게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고, 특위 활동을 개인의 ‘감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관련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김동수기자

# ‘수사정보 누설’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A(60) 경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광주 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B(55·변호사법 위반)씨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A 경위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2016년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 C씨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광주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 수사 중 인지한 범죄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 A 경위에게 조합장 C씨를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약정한 뒤 C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 D씨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 경위가 사건관계인 등에게 제보자 인적 사항, 검찰이나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영장 재신청 방침 등을 누설한 것으로 봤다.

A 경위와 B씨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수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며 브로커 D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전남경찰청 소속 E 경위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하며 6천6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경위와 E 경위가 같은 부서에 근무할 당시 동일인으로부터 청탁 등을 받아 사건 병합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청탁 대상 사건이 각각 다르고 사건 진행이 더딜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김동수기자

# ‘경찰 강압 수사’ 보험사기 혐의 4명 무죄

법원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4명의 ‘강압 수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관의 강요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경미하거나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 1천9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한 광주 서부경찰서 B 경위가 자백을 강요하고 “가족 회사까지 싹 털어버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강압수사를 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내사처리 규칙 위반(보고서 미작성 등)과 폭언 등의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인권위도 지난해 5월 B 경위가 형사소송법상 단독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직무교육 실시 권고 결정을 했다.

A씨는 이후 B 경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백 강요와 부적절한 언행 등에 따른 인격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강압 수사와 강요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모두 범행을 부인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중 한 명은 교통사고 전까지 다른 피고인들을 알지 못했고 보험

금이나 병원비, 합의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납부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만 2세가 되지 않은 아기를 태우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보험사기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옛 연인 집 찾아가 귀금속 훔쳐**

헤어진 옛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 7월1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연인 B(55)씨의 집에 침입해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그는 열쇠를 두고 나왔다며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쓴 돈이 아깝다”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훈기자



**송고한 희생정신 기리는 추모제**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광주시지부는 26일 오전 남구 구동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유족과 광주시 보존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호국영령 추모제’를 거행했다. 조국의 평화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 바친 영령들의 송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이날 추모제는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념사, 헌시낭송, 제례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근기자

# ‘고수익 미끼 학부모·제자 사기’ 학원장 구속영장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사기를 벌인 학원장이 붙잡혔다.

장성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학원장 A(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

청했다.

A씨는 비대면 초등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와 과거 제자 등 12명에게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강의가 인기다. 일주일만 투자해도 원금과 이자까지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유죄했다. 지인들에게도 연 15%에 육박하는 고이율 적금이 있으니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라며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편취금 일부로 본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김문태기자

# 목포해경, 목포항 선박 방화범 검거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 39분께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B선박(29t, 근해저항)에 불을 지르

고 달아나 인근에 계류돼 있던 어선 포함, 총 3척의 선박에 8억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 화재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내·외부 CCTV와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방화 혐의점을 포착하고 통신·탐문수사 등을 토대로 끈질긴 추적 끝에 최근 A씨를 목포시 북항 부두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B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에 침입해 불을 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